

「82년생 김지영」의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한 한일 번역 비교

코다야 마유미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http://www.kci.go.kr)

# 「82년생 김지영」의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한 한일 번역 비교

코다야 마유미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 관련 어휘의 정의
  - 2.2 선행연구
3.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한 한일 번역 비교
  - 3.1 신조어
  - 3.2 생활문화 관련 어휘
  - 3.3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
4.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한일 번역 비교
  - 4.1 일본어로 대체 가능한 의성어·의태어
  - 4.2 일본어로 풀어서 쓴 의성어·의태어
  - 4.3 일본어로 번역한 의성어·의태어
5. 분석 결과
6. 결론

<Abstract>

**Kodaya Mayumi.** 2019. 7. 30.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translation of culture related words in Kim Ji Young born 1982**,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4, 207-233.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he Korean and Japanese translation 'Kim Ji Young born 1982'. The reason of the selection of this novel is the issue of common interest to Japanese as well as Korean. This novel deals with social

problems through the main character experiences. Many Korean women may have had same experiences like Kim Ji Young. Although it deals with the material of Korean culture, discrimination as women living in Japan is not much different from Koreans. So it is drawing sympathy from Japanese readers. The cultural elements appearing in literary works are important to infer a part of the novel's period background and atmosphere. This novel presents statistical figures and news articles, which are written more easily than literary works. The Japanese translation focuses on acceptability and legibility, and has chosen a translation method that describes cultural elements. This study excerpts cultural elements such as the newly-coined words, living culture related vocabulary, women's point of view related vocabulary and onomatopoeic words. It is meaningful how cultural elements are actually being translated in Korean and Japanes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im Ji Young born 1982, cultural elements, culture-bound words, Korean and Japanese translation, The cultural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 1. 들어가는 글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대상으로 한일 번역문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선정 한 이유는 일본 독자들도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문학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본에서 3개월 만에 13만부가 돌파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82년생 김지영」 소설은 작품성이나 문체가 뛰어난 작품으로 주목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문제를 문학

적 담론으로 여실 없이 드러내고 있어 독자들이 공감한다. 즉, 이 소설은 주인공이 시기별로 겪는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건들마다 사회·문화적 요소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문화 요소<sup>1)</sup>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한 문학 작품의 고유성은 특별한 단어에 대한 선호도, 통사구조의 특이성, 더 나아가서 언어유희, 개인 언어, 신조어 등 작가의 고유한 개별적 문체를 통해서도 형상화되지만, 문화적 요소를 통해 생성되는 분위기, 정서, 정감 등도 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 내에서의 문화적 요소의 기능 및 작용 또한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김정연, 2011:28).

「82년생 김지영」은 전업주부 김지영 씨라는 주인공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곤란과 차별을 쓴 한국 소설이다. 평범한 한국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 씩은 경험 했을 법한 내용들을 담아 독자들에게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100만부를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sup>2)</sup>가 되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김지영 씨가 시기별로 겪는 사건들을 보면 그 시대의 한국사회를 알 수 있다.

2018년도에 「82년생 김지영」 소설의 일본어판이 출간되었다. 한국 문화 배경,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여성으로 살아가

---

1) 문학 작품에 나오는 문화적 요소는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배경을 구성하고,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분위기를 창조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을 특정 문화와 시대에 위치하게 하고, 특정 가치와 분위기를 함축한다. 김정연(2003:28), “문학 작품들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들의 번역 방법 연구” 하그포르트(Hagfors 2003:115) 재인용.

2) 다수의 공감을 얻으며 공통적으로 읽히는 베스트셀러는 저자와 출판인의 개인적 취향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다. 김보라(2012:1), “2000년대 일본문학의 국내 출판 양상과 베스트셀러 요인에 관한 연구”.

며 겪는 어려운 상황과 차별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본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본은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로 여성의 차별적인 대우를 목소리 높여 얘기하지 못한다. 일본 독자들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sup>3)</sup> 주인공 김지영 씨의 삶을 통해 보편적인 한국 여성들의 겪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건들마다 통계적 수치와 뉴스기사를 제시하여 문학작품보다 보고서 같은 느낌으로 읽기 쉽게 쓰여 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든 여성들이 겪는 사회 문제로 한일 두 문화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충돌이나 간섭이 별로 없다. 일본어 번역문은 수용가능성, 가독성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 관련 어휘에는 역주를 달아 설명하는 번역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번역문에서 문화 관련 어휘를 발췌하고 신조어, 생활문화 관련 어휘,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 의성어·의태어로 분류하여 한일 번역본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 관련 어휘의 정의

문화관련 어휘란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사·사회·경제·정치·언어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한 특정 문화에서 비롯된 어휘’ 이다(이근희, 2005:250). 문학 작품에 나오는 문화 관련 어휘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작품 「82년생 김지영」 또한, 시대별로 사

3) 출처: 好書好日(Good Life with Books), <http://book.asahi.com>

회적 문제를 소재로 하여 사건을 구성하고 있어 문화 관련 어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작품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2 선행연구

문학 작품의 번역은 그 작품이 속해 있는 문화의 번역이며, 원작품의 문화적 색채를 살려주는 데 일조하는 문화적 요소들은 작품 전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김정연, 2011:30). 「82년생 김지영」 소설은 주인공이 시기별로 겪는 경험을 이야기 하듯이 풀어내고 있으며 그 시대의 문화 관련 어휘들이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 독자들은 한국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학 번역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인영(2011)은 일본현대소설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ノルウェイの森(노르웨이의 숲)」에 나타난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해서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음차번역, 부분 음차번역, 한자발음 그대로 번역 등의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상황에 따라 번역전략이 달라지지만 고유명사는 동일한 텍스트 내에서는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휘로 대처하거나 풀어서 설명하는 등의 번역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소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번역자는 어휘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지식에 대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병철(2014)는 18세기 조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양반전에 나오는 문화 특정적 요소를 어떻게 재조명하고 현대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 특정적 요소가 짙은 단어인 경우, 소리를 음차번역, 각주를 통해 추가정보 보강,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결 텍스트를 제공 등을 사용하여 이국화

또는 역사화를 고수해서 독자의 수용성을 참작하였다. 반면 사회문화적 상징성이 약한 표현에 대해서는 대응 표현을 찾아 현지화, 현대화 번역을 택하였다. 어떤 번역전략을 사용하든 독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82년생 김지영」 소설에 나타난 한일 번역 양상을 보기 위해 여기서는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의 번역 전략을 참고로 하였다. 베누티는 번역전략을 “자국화 번역”(친숙하게 하기, domesticating translation)과 “이국화 번역(낯설게 하기, foreignizing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sup>4)</sup>

이근희(2005:250-251)는 문화관련 어휘의 범주를 고유명사,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관용어, 도량형의 단위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 항목을 살펴보면 원천 문화권에 대한 배경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항목에 맞는 적절한 번역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근희의 문화관련 어휘 범주를 이 작품에 맞게 변형하였다.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곤란과 차별을 반영한 작품으로 시대를 반영한 신조어, 생활문화 관련 어휘, 여성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등장한다. 관용어 범주에 속하는 신조어는 따로 떼어내고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생활문화와 관련된 어휘로,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를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로 바꾸었으며 별로 등장하지 않는 고유명사와 도량

---

4) 이근희, 「번역의 이론과 실제」, 2005, 한국문화사, 81쪽~83쪽.

베누티의 자국화 번역은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이 외국 텍스트의 생소함을 가능하면 느끼지 않도록 채택하는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양식의 번역 방법으로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추가로 삽입하거나, 원천언어의 방언이나 역사적 특색이 나타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생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국화 번역은 원천 텍스트에 존재하는 이국풍의 요소를 목표 텍스트에 그대로 옮겨 의도적으로 목표언어권의 관습에 적합하지 않는 목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으로 원천 텍스트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원천언어권 내에서도 생소한 어떤 요소를 그대로 옮기는 방법을 말한다.

형의 단위는 범주에서 생략하였다.

### 3.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한 한일 번역 비교

본 연구에서는 신조어, 생활문화 관련 어휘,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 세 가지로 나누어 문화 관련 어휘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어떤 번역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1 신조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신조어는 “새로 생긴 말 또는 귀화한 외래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일본 사전 広辞苑<sup>5)</sup>에 따르면 신조어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사용된 말”로 정의되어 한국과 일본 신조어의 유사한 개념은 ‘새롭게 생성된 말’이다. 이은주(2014:9)은 신조어는 사회발전,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들이 출현함에 따라 언중의 필요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의미의 말을 뜻하며, 여기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신조어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며 한국 사회적 요인으로 새롭게 생겨진 말로 일본어에서 일대일로 대응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일본어 번역본의 신조어 번역의 경우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로 번역하고 설명을 첨가하였다. 구체적인 번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a. 한국어(원문)

---

5) 広辞苑(코우지엔)은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 岩波書店(이와나미서점)에서 발행한 일본어사전.

“젊은 사람이 강된장을 먹을 좋아네? 미스 김도 된장녀였어? 허허허 허허.”

된장녀라는 신조어가 생겨 났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무슨 무슨 녀(女), 라는 말들이 한창 유행하던 즈음이었다 (조남주, 2016:114).

b. 일본어(번역문)

「若い人に味噌の味がわかるのかね？ミス・キムも味噌女なのか？ハハハハハ」

「味噌女」[家族や恋人に経済的に依存して、ブランド物を買ったり、高いスターバックスのコーヒーを飲んだりする見栄っ張りの女を貶めて言う2005年ごろの流行語。ちなみにスターバックスなどコーヒーチェーン店の価格が日本よりずっと高い]という新語が生まれ、ほかにも韓国女性を見下す「〇〇女」といった言葉が流行しているところだった (チョ・ナムジュ, 2018:107).

예시(1)은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된장녀’ 뒤에 부연설명을 제공하는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된장’ 을 이르는 일본어 ‘味噌’ 를 사용하고 ‘여자’ 를 이르는 ‘女’ 를 합쳐서 ‘된장녀’ 를 ‘味噌女’ 로 표현하고 있다.

(2)

a. 한국어(원문)

나도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충 팔자가 상팔자야……한국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 (조남주, 2016:164).

b. 일본어(번역문)

俺も旦那の稼ぎでコーヒー飲んでぶらぶらしたいよなあ……ママ虫[育児をろくにせず遊びまわる、害虫のような母親という意味のネットスラング]もいいご身分だよな……韓国の女なんかと結婚するもんじゃないぜ…… (チョ・ナムジュ, 2018:158).

예시(2)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부연설명 제공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예시(1)와 다른 점은 ‘맘충’ 이라는 말이

‘맘’을 ‘ママ(mama)’, ‘母(mother)’ 또는 ‘お母さん’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충’도 ‘虫(벌레)’ 또는 ‘害虫(해충)’ 등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ママ虫, 母虫, お母さん虫, ママ害虫, 母害虫, お母さん害虫’ 등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일본인 번역가 사이토 마리코(齋藤 真理子) 씨는 ‘맘충’이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ママ虫」이라고 약한 예쁜 어감일 수도 있다. 한국어 ‘맘충’의 어감은 아주 나쁜 것이어서 「母害虫」(모 한자+ 해충 한자) 등 10개 정도 후보를 내면서 끝까지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sup>6)</sup> ‘된장녀’나 ‘맘충’을 보면 한국의 사회현상이 보인다. 이런 말들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다.

2004년 일본에서 유행한 ‘負け犬(마케이누)’라는 일본어는 30대가 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일본어 사전인 広辞苑에 따르면 원래 ‘負け犬’란 “싸움에 져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개”를 뜻하는 것으로 “경쟁에 져서 풀이 죽어 물러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2003년 작가 사카이 준코(酒井 順子)씨가 쓴 베스트셀러 작품 「負け犬の遠吠え(마케이누의 절규)」에서 미혼, 아이가 없는 30세 이상의 여성을 ‘負け犬’로 여긴다. 이 에세이는 미혼 여성들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유쾌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30세 이상, 미혼, 아이 없다”이 부분만 강조되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마치 패배한 개로 비유하여 언론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牛窪(2017)은 ‘負け犬’라는 말만 퍼져 회사 안에서 “당신은 일 잘 해도 ‘마케이누’잖아”라고 놀림 받은 여성들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반면 2009년에는 남자들이 주로 즐기는 분야에 ‘女, 女子, ガール(여성을 가리킴)’을 붙여 긍정적인 의미의 여성 지칭하는 유행어도 생겼다. 예를 들면 ‘歴女(역사를 좋아하는 여성), 野球女子(야구를 좋아하는 여성), 山ガール(등산을 좋아하

6) 출처: 好書好日(Good Life with Books), <https://book.asahi.com>

는 여성)등을 들 수 있다.

### 3.2 생활문화 관련 어휘

「82년생 김지영」 소설에서 생활문화 관련 어휘들이 자주 등장한다. 생활문화 관련 어휘들은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통용되는 어휘로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어렵다. 생활문화 관련 어휘에 있어서 한일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 한국어(원문)

가장 골치 아픈 부업은 문풍지 말기였다. 문이나 창문 틈에 붙이는 스펀지 재질의 좁고 길고 한 면에 끈끈이가 발라져 있는 문풍지. 그게 기다란 채로 트럭에 실려 오면, 두 줄씩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돌 돌 말아 작은 비닐봉지에 담는 일이다. 문풍지를 왼손 엄지와 점지 사이에 끼우듯 가볍게 쥐고 오른손으로 모양을 잡으면 마는데, 문풍지를 당기며 말다 보면 끈끈이를 덮고 있는 종이 스티커에 왼손 엄지와 점지 사이의 갈 부분을 쉽게 베었다(조남주, 2016:31).

b. 일본어(번역문)

いちばん大変だった内職はすきまテープ巻きだ。すきまテープとはドアや窓のすきまをふさぐためのスポンジ素材の細長いテープで、片面に糊がついているものだ。テープは長いままでトラックで運ばれてくるので、それを二本ずつ渦巻き状に巻いていき、小さな袋に入れる。左手の親指と人差し指ですきまテープをはさむようにして軽く持ち、右手で形を作りながら巻いていくのだが、引っ張りながら巻いていくと、糊の面をおおっている剥離紙の部分が固いので、しょっちゅう左手の指の間が切れてしまう(チョ・ナムジュ, 2018:26).

일본어는 문풍지라는 말이 없다. 한국어 그대로 사용하여 「문풍지(문풍지)」라고 표기하면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틈에 바르는 테이프(すきまテープ) 어휘를 가지고 와서 번역하였다. 문풍지를 도착어 어휘 「すきまテープ巻き

(틈+테이프+말기)」로 대체한 번역 방식을 채택하였다.

(2)

a. 한국어(원문)

아버지가 퇴근한 후에도 문풍지를 말고 있는 날이 많았다. 국민학생인 김지영 씨와 김은영 씨는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숙제하다 놀다 쉬다 일을 거들었고, 어린 남동생은 스펀지 조각과 포장 비닐을 찢으며 놀았다(조남주, 2016:31).

b. 일본어(번역문)

父が帰ってきてもすきまテープを巻いていることがよくあった。国民学校[日本の小学校にあたる。一九九五年に「初等学校」と名称が変わった]に通っていたキム・ジヨン氏とキム・ウニョン氏は母のそばにくっついて宿題をし、遊びながら仕事を手伝い、小さい弟はすきまテープとビニール袋を破いて遊んだ(チョ・ナムジュ, 2018:26).

국민학교(國民學校)는 일제시대 때 사용한 이름으로 1941년부터 사용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계속 국민학교로 불리다가 1995년 8월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初等學校)로 변경하였다. 1996년부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불리기 되었다. 이 소설에 국민학생이 등장한 것을 토대로 시대적 배경이 1996년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이 82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인공의 초등학생 시절은 국민학생을 불리었던 시대였다. 일본의 경우는 1941년부터 1947년까지 국민학교로 불렸고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초등학교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학교로 불리었지만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3)

a. 한국어(원문)

김지영 씨가 태어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아기가 찾아왔다. 어느 밤, 어머니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대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와 치

마 속으로 폭 안겨 오는 꿈을 꾸었다고 아들임을 확신했다(조남주, 2016:27).

b. 일본어(번역문)

母は家ほどもある虎が門を壊して飛び込んできてスカートの中にすっぽり入るといふ夢を見て、息子だと確信した〔韓国では妊娠中の女性や周囲の人が見た夢(胎夢)の内容によって、生まれてくる子供の将来を占う習慣がある〕(チョ・ナムジュ, 2018:23).

원문에서는 특정한 어휘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을 보면 ‘태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태몽’과 같이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맞추는 꿈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였고 본문 내에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원문에서는 ‘태몽’이라는 어휘는 없으나 번역문에서는 “한국에서는 임신부나 주위 사람들의 본 꿈(태몽)…”이라고 태몽의 한자음 ‘胎夢’을 달고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4)

a. 한국어(원문)

결국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2005년 2월에 호주제가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곧 호주제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대한민국에 호적 같은 것은 없고, 사람들은 각자의 등록부를 가지고 잘 살고 있다.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혼인신고 할 때 부부가 합의했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경우는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 65권을 시작으로 매년 200건 안팎에 불과하다 (조남주, 2016:131).

b. 일본어(번역문)

結局、戸主制度は廃止された。二〇〇五年二月、戸主制度は憲法で保障された两性平等の原則に違反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の決定が下され、間もなく戸主制度廃止を主たる内容とする改正民法が公布され、二〇〇八年一月一日から施行された。もはや大韓民国に戸籍などというものはなく、人々は一人ひとりの登録簿だけで問題なく暮らしている。子が必ず父親の姓を受け継がなくてはならないわけでもない。婚姻届を出

す際に夫婦が合意すれば、母親の姓と本貫を継ぐこともできる。それは可能なことなのだ。しかし、子が母親の姓を受け継いだケースは、戸主制度が廃止された二〇〇八年に六十五件だったのを皮切りに、毎年二百件内外にすぎない(チョ・ナムジュ, 2018:124).

‘호주제’를 묘사를 사용하여 호주=戸主, 제=制度(제도)로 번역을 하고 있다. ‘호주제’의 경우에는 일본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같은 한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고 각주를 생략하였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혼하지 않아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일본은 부부가 혼인을 하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성으로 바꾸어야 하여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이 성을 바꾸어도 상관없으나,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 경우가 96%가 넘는다(권숙인 외, 2016). 하지만 2015년에 민법 750조에 실린 이 법은 인격권, 평등, 혼인의 자유 등에 위반한다고 하여 부부별성(夫婦別姓: 사실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호적상에서는 부부동성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성을 사용함)이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5)

a. 한국어(원문)

얼굴이 하얗고 손이 고운 할아버지는 평생 흠 한 줌 쥐어 보지 않았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계집질 안하고, 마누라 때리지 않은 게 어디냐고, 그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조남주, 2016:26).

b. 일본어(번역문)

色白できれいな手をした夫は生涯の間、一握りの土もつかんだことのないような人だった。家族を扶養する能力もまったくなかったのだ。それでも彼女は夫を恨まなかった。女遊びをせず、妻を殴らないだけでも大したものだ、これなら良い夫だと本気で思っていたのである(チョ・ナムジュ, 2018:22).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집질’은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낫잡아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 그리고 ‘계집’은 “여자를 낫잡아 이르는 말”이다. 남자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보면 여성을 낫잡은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언어와 성차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는 ‘계집질’을 합성어 ‘女(여자) + 遊び(놀이)’로 번역하고 있다. 한자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생략하였다. 한국어와 비교를 하면 한국어 어감이 더 세게 느껴진다. 이 외에 일본어도 ‘悪女(악녀, 성질이 좋지 않는 여자)’는 있어도 ‘悪男(나쁜 남자)’는 없고 ‘悪妻(나쁜 부인: 남편을 위해서 좋지 않는 부인)’은 있어도 ‘悪夫(나쁜 남편)’은 없다. 일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가 더 많이 존재한다.

### 3.3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의 경우에는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어휘로 나라에 따라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며,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일본어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을 번역할 경우, 도착어 문화권에서 이질감이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방식과 각주를 달아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a. 한국어(원문)

자신의 꾸중에도 딸이 속상한 기색 하나 없이 무덤덤하자 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보탰다.

“넌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

이제껏 더 심한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김지영씨는 갑자기 견딜 수가 없어졌다. (중략)어머니는 얼굴이 시뻘컘게 달아올라 손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당신은 지금 때가 어느 펜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릴 하고 있어? 지영아, 너 얌전히 있지 마! 나대! 막 나대! 알았지?” (조남주, 2016:105).

b. 일본어(번역문)

こんなに怒っても娘が無反応なのを見ると、父は一言つけ加えた。

「おまえはこのままおとなしくうちにいて、嫁にでも行け。」

ところが、さっきあんなひどいことを言われても何ともなかったのに、キム・ジョン氏はこの一言で急に耐え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中略)母は顔を真っ赤にして、スプーンを食卓にたたきつけた。

「いったい今が何時代だと思って、そんな腐りきったこと言ってるの? ジョンはおとなしく、するな! 元気出せ! 騒げ! 出歩け! わかった?’ (チョ・ナムジュ, 2018:98)

“나대! 막 나대!” 라는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김지영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 말속에 씩씩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한국 여성들이 모습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짧은 텍스트를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어휘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기가 힘들다. 일본인 번역가 사이토 마리코 씨도 이 어휘를 번역할 때 고생하였다고 한다. 저자 조남주 씨가 페미니즘 운동에서 자주 쓰이는 슬로건 “GO WILD, SPEAK LOUD, THINK HARD” 를 참고하라고 하여 이 문장을 의역하였다.<sup>7)</sup>

(2)

a. 한국어(원문)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 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조사국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해, 여성이 일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꼽혔다(조남주, 2016:124).

---

7) 참고: 好書好日(Good Life with Books), <https://book.asahi.com>

b. 일본어(번역문)

英国の『エコノミスト』誌が発表した「ガラスの天井[マイノリティや女性の昇進を妨げる、目に見えない壁]指数」でも、韓国は調査国のうち最下位を記録し、最も女性が働きづらい国に選ばれた(チョ・ナムジュ, 2018:118).

‘유리 천장’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매년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the glass-ceiling’<sup>8)</sup>에서 나오는 말이다. 일본어는 ‘유리천장’을 그대로 직역하여 ‘ガラスの天井’로 번역하고 그 뒤에 설명을 추가하였다. OECD에 가입한 29개국을 대상으로 유리천장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29국가 중 꼴찌인 2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가장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28위로 낮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한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2018년도의 여성 사회진출도 평가에는 일본은 135국가 중 110위로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sup>9)</sup> 이에 따르면 일본은 아직까지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일본 선거 후보자를 ‘남녀평등’을 목표로 한 법도 시행되었다. 이것은 남녀의 정치참여 평등을 정한 프랑스의 법 ‘파리테(Parite)’에서 영향을 받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성별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시부모님 돌보기, 집안일, 육아 등은 여성의 일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8) 참고: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9) 참고: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3)

a. 한국어(원문)

이제껏 상품 개발부서에 있다가 홍보부로 온 지 석 달 정도 되었다는 부장은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멈추지 않았다. 김지영 씨는 얼굴형도 예쁘고 콧날도 날렵하니까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되겠다며 외모에 대한 칭찬인지 충고인지도 계속 늘어놓았다(조남주, 2016:116).

b. 일본어(번역문)

三カ月前に商品開発部から広報部に移ってきたという部長は、経験を踏まえたアドバイスを止めなかった。キム・ジヨン氏は顔もきれいだし鼻筋も通っているから二重まぶたの手術さえすればいいなどと、ほめているのかけなし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外見の話が延々と続く(チョ・ナムジュ, 2018:109).

사회심리학자인 김충희와 다이보 이쿠오의 연구를 보면 ‘성형을 위해 메스를 얼굴이나 몸에 대는 것이 싫다’ 라고 답한 일본 여대생의 비율이 67%로 한국 여대생의 38%로 한국의 77%보다 높았다(유영수, 2016:87).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본사람은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사람보다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성형(成形)’ 수술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형(整形)’ 수술이라고 부른다. 성형은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지만, 정형은 기형이나 손상된 부위를 재건하는 것으로 치료의 하나로 본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체, 외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서구의 커뮤니케이션 가치관이 유입되어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거리낌이 없다.

유영수(2016:90)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 이므로’ (38%),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33%)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였고 연애와 결혼, 취직 등에서 외모가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외모 경쟁력을 키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가 외모를 너무나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번역문을 보면 원문에서는 “...충고인지...” 라고 쓰여 있지만 번역문에서는 충고에 해당하는 일본어 ‘忠告(충고)’ 라는 말을 쓰지 않고 ‘けなす(까아내리다, 욕하다)’ 라고 의역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는 외모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히 실례이고 용납 못 하는 일이므로 충고라고 번역하지 않았다.

#### 4.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한일 번역 비교

문학작품에서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면 문장의 표현력이 높아지고 생동감이 더해진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는 의성어·의태어 수가 다른 언어보다 비교적 많고 사용 빈도도 높다. 일본에서는 의성어(또는 의음어[擬音語])과 의태어를 합쳐서 オノマトペ(오노마토페:onomatopoeia)라고 부른다.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장의 표현력과 생동감을 더하지만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기서는 「82년생 김지영」 소설 속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 4.1 일본어로 대체 가능한 의성어·의태어

(1)

a. 한국어(원문)

방직기계가 내뿜는 열기 때문에 덥다 못해 미칠 지경이었고, 안 그래도 짧은 스커트를 최대한 걷어 올리고 일을 해도 팔꿈치와 허벅지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조남주, 2016:35).

b. 일본어(번역문)

紡績機械が吐き出す熱気のせいで熱さは耐えられないほどで、ただでさえ短かったスカートを最大限にまくり上げて働いたが、それでも肘や腿から汗がぼたぼた落ちた(チョ・ナムジュ, 2018:30).

(2)

a. 한국어(원문)

금요일 학급 회의 시간이 되자 유나는 정말 손을 번쩍 들고 건의했다. ……유나는 교단에 선 선생님을 똑바로 보면서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했고, 선생님은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실룩였다. 교실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처럼 아슬아슬했다. 말하고 있는 건 유나인데 김지영 씨가 너무 긴장돼서 다리가 덜덜 떨렸다. 그런데 잠시 유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선생님이 싱긋, 웃더니 대답했다(조남주, 2016:45).

b. 일본어(번역문)

そして金曜日の学級会で、ユナはほんとうに手をサツと挙げて提案した。……ユナは教壇に立った先生をまっすぐ見ながらはっきりとそう言い、先生はいつもと同じように微笑を浮かべていたが、口元がびくびくしていた。教室の雰囲気はびーんと張り詰めたゴム紐のようで、はらはらさせられる。話しているのはユナなのに、キム・ジョン氏は緊張のあまり足がぶるぶる震えた。ところが、しばらくユナをじつと見ていた先生は、にっこり笑うとこう答えた(チョ・ナムジュ, 2018:40-41).

(3)

a. 한국어(원문)

…… 50대 정도의 아주머니가 김지영 씨의 배를 훌끔훌끔 보더니 몇 개월이냐고 물었다. ……산에 갔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시큰시큰해. ……아주머니는 대놓고 두리번거리며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김지영 씨는 더욱 마음이 불편했다(조남주, 2016:140).

b. 일본어(번역문)

……五十代ぐらいのおばさんが、キム・ジョン氏のおなかをちらちら見て、何カ月かと聞いた。……山で足首をくじいちゃってさ、じつとしててもずきずきするんだよね。……おばさんは無遠慮にあたりをきょろ

きょう見回して、座っている人たちに気まずい思いをさせ、キム・ジョ  
ン氏はさらに居心地悪くさせた(チョ·ナムジュ, 2018:133).

위 문장은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일본어 의성어·의태어로 대체하여 번역을 한 예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일본어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감이 비슷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의성의·의태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일본어로 대체 가능한 의성어·의태어가 다수 존재한다.

## 4.2 일본어로 풀어서 쓴 의성어·의태어

(1)

a. 한국어(원문)

분주하게 움직이던 어머니의 손과 어깨가 순간 우뚝 멈췄다. 어머니는 주섬주섬 포장된 문풍지 봉지들을 상자에 담으며 정리했고,……(조남주, 2016:32).

b. 일본어(번역문)

せつせと働いていた母の手と肩がその瞬間ぴたっと止まった。母はす  
きまテープの袋を一つ一つ箱にしまい、……(チョ·ナムジュ,  
2018:27).

(2)

a. 한국어(원문)

……순가락으로 식판을 탁탁탁탁 두드렸다. 먹던 밥이 목구멍에 킁킁 킁킁 얹히는 것 같았다(조남주, 2016:43).

b. 일본어(번역문)

……スプーンでトレイをカンカンカンカンたたくので、ごはんがのどに  
詰まりそうになる(チョ·ナムジュ, 2018:38).

(3)

a. 한국어(원문)

복장 규정이 좀 빡빡했는데, 유난히 여학생들에게 엄격했다(조남주,

2016:54).

b. 일본어(번역문)

服装の決まりがちょっと面倒で、女子にはひどく厳しかった (チョ・ナムジュ, 2018:47).

예시(1)은 한국어 의태어 ‘주섬주섬’ 를 일본어 명사 ‘一つ一つ’ 를 사용하며 번역을 하였다. 예시(2)는 한국어 의성어 ‘컹컹컹’ 을 일본어 동사 ‘詰まる’ 를 사용하여 번역을 하였고 예시(3)은 한국어 의태어 ‘뽁뽁’ 을 일본어 형용동사(形容動詞<sup>10</sup>) ‘面倒だ’ 를 사용하여 번역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일본어 의성어·의태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의미를 살리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일본어 표현을 찾아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명사, 동사, 형용동사 등 여러 가지 일본어 품사를 사용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등가를 구현하고 있다.

### 4.3 일본어로 번역한 의성어·의태어

(1)

a. 한국어(원문)

가슴과 허리와 아랫배와 골반과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부어오른 듯 빠근하고 당기고 쭈시고 뒤틀렸다(조남주, 2016:62).

b. 일본어(번역문)

胸や腰、下腹、骨盤、お尻、内腿まで腫れたようにだるく、引っ張られるような痛みがあり、ずきずきしてよじれるようだ (チョ・ナムジュ, 2018:55).

---

10)형용동사(形容動詞)는 일본어 품사의 하나다. 「静かだ(조용하다)」, 「親切だ(친절하다)」 등 용언의 일종으로 의미상 형용사에 가깝고 활용은 동사에 가까운 것으로 전제를 하나로 인정하여 형용동사라고 부른다.

(2)

a. 한국어(원문)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전과 똑같이 아무 실수 없이, 잘 못 없이 사는데도 생활에 위협을 받자 아버지는 크게 당황했고 눈에 띄게 흔들렸다 (조남주, 2016:70).

b. 일본어(번역문)

まじめにコツコツと、いつも失敗しないように、間違いのないように生きてきたのに生活が脅かされた父は、ひどく当惑し、目に見えて動揺した (チョ·ナムジュ, 2018:63).

(3)

a. 한국어(원문)

……하고 눈 하나가 더 떠지는 기분이었다(조남주, 2016:95).

b. 일본어(번역문)

……目がもう一つ、バツと開いたような気分だった (チョ·ナムジュ, 2018:88).

예시(1)은 한국어 동사 ‘쑤시다’를 일본어 의태어 ‘ずきずき’를 사용하여 원문의 어휘가 가진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 번역을 하였다. 예시(2)는 한국어 형용사 ‘성실하다’의 의미에 일본어 의태어 ‘コツコツ(착실히 노력을 쌓다)’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하였다. 예시(3)은 한국어 동사 ‘떠지다’를 단순히 ‘開く(떠지다)’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성어 ‘バツ’을 사용함으로써 생동감이 있게 번역 하였다.

위와 같은 예처럼 적절한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원문을 번역 하면 원문이 가진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독자들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소설 속에는 수많은 의성어·의태어가 문장 속에 나타난다. 이러한 의성어·의태어 번역을 할 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많은 의성어·의태어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등가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의성어·의태어를 문맥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의성어·의태어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표현력을 잘 활용하면 내용이 구체화되어 원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5. 분석 결과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한 한일 번역물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조어와 생활문화 관련 어휘 번역의 경우에는 출발어를 최대한 살려서 도착어로 번역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원문의 작품이 베스트셀러라는 특성과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내용이라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전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의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 받아들이는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독자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가 생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화 번역전략을 사용하였다.

의성어·의태어의 특성상 출발어 형태로 번역이 어렵지만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의성어·의태어가 발달된 언어로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의성어·의태어가 존재하였다. 대응이 불가능한 의성어·의태어의 경우에는 풀어쓰거나 출발어는 의성어·의태어가 아니지만 도착어로 번역할 때는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의성어·의태어는 출발어와 도착어 양쪽 문화 모두를 이해하지 않고는 적절한 대응을 찾기가 힘들다. 의성어·의태어의 번역은 독자가 낯설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에 중점을 두어 번역하였다.

한일 번역물을 비교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신조어와 생활문화 관련 어휘는 출발어에 충실한 이국화 번역 방식을 사용하였고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와 의성어·의태어의 경우에는 도착어에 초점을 맞춘 자국화 번역 방식을 사용하였다.

##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문화 관련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번역문에서의 번역 양상을 살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 관련 어휘가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82년생 김지영」 소설의 한일 번역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일본 문화에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한 번역은 각주를 달아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생소한 문화 관련 어휘에 각주를 달아 설명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화 관련 어휘를 그대로 직역하여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함이다.

신조어 번역의 경우, 신조어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일대일로 대응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여기서는 일본어 번역문에 부연설명을 추가하여 한국어 신조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한국어 신조어 속에 '~녀, ~충'을 붙여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활문화 관련 어휘는 출발어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어휘로 번역하기가 어렵다. 원문에서 어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조어 번역과 마찬가지로 부연설명을 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어휘 번역의 경우에는 의역을 사용하여 번역을 하는 경우와 부연설명을 사용하여 번역을 한 부분이 있었다. 원문에서 등장하는 “나대! 막 나대!”라는 주인공 김지영 어머니가 말하는 부분은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짧은 텍스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잘 반영하여 번역하기 위해 의역 방식을 채택하였다.

의성어·의태어에서 번역은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와 대응하는 일본어 의성어·의태어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었다. 한국어 의성어·의

태어에 대응하지 않는 일본어를 번역을 할 때는 의역을 사용하여 풀어 쓰고 반대로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어 문장의 경우에는 일본어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하였다.

「82년생 김지영」 소설은 한국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문학 작품으로 문화 관련 어휘들이 많이 등장한다. 일본어로 번역된 이 소설은 일본인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어 번역문은 원문에 나타난 한국문화 관련 어휘를 일본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충실성면에서 잘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일 번역문에서 문화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번역 양상을 분석을 하였으나 깊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문학작품의 번역 양상을 다룸으로써 문화 관련 어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문화 관련 어휘의 번역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문화 관련 어휘 범주를 더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화영(2002). 동작에 관한 일본어 의태어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도훈(2006).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전략, <통역과 번역> 8권 2호, 한국통역번역학회. 3쪽~29쪽.
- 김도훈(2014).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기법, <번역학 연구> 15권 1호, 한국번역학회. 25쪽~50쪽.
- 김보라(2012). 2000년대 일본문학의 국내 출판 양상과 베스트셀러

-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연(2011). 문학 작품들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들의 번역 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병철(2014). 양반전의 문화 특정적 요소 번역 전략, <고전번역연구> 5권, 한국고전번역학회. 313쪽~332쪽.
- 권숙인·김영·김효진·신기영·이은경·이지형·지은숙(2016). 「젠더와 일본 사회」, 한울애플러스(주).
- 박미해(2012). 일본어 신조어 생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인영(2011). 일본현대소설의 문화관련 어휘 번역 小考 - 村上春樹 『ノルウェイの森』의 번역텍스트 비교, <일본문화학보> 50권 50호, 한국일본문화학회. 215쪽~233쪽.
- 정호정(2007). 「제대로 된 통역·번역 이해」, 한국문화사.
- 조남주(2016). 「82년생 김지영」, (주)민음사.
- 유영수(2016). 「일본인 심리상자」, 한스미디어.
- 이근희(2005).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이은주(2014).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2010년부터 2013년의 신조어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牛窪恵(2017). 「おひとりウーマン」消費! 巨大市場を支配する40・50代パワー, 毎日新聞出版.
- チョ・ナムジュ(2018). 「82년생まれ、キム・ジヨン」 斎藤真理子 訳, (株)筑摩書房.
- Gender Equality Bureau Cabinet Office, 「共同参画 2018年12月号」, (<http://www.gender.go.jp>)
- Japanfoundation, 「カチの声 第93号」, (<https://www.jpff.or.kr>)
-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https://www.economist.com>)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https://www.weforum.org>)

好書好日(Good Life with Books), 「82年生まれ、キム・ジョンはなぜ支持される? 翻訳者・齋藤真理子さんが徹底解説インタビュー」

(<https://book.asahi.com>)

### 필자소개

성 명 : 코다야 마유미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번역학과

전자우편 : [mayumilk@daum.net](mailto:mayumilk@daum.net)

투고일: 2019. 7. 30 / 심사일: 2019. 8. 7 / 심사완료일: 2019. 8. 18